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5. 21.(목) 12:00
- 장 소 : 여수MBC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박배연 위원,
천현진 위원, 이현규 위원(이상 10인)
- 불참위원 : 천지연 위원, 김종은 위원, 박종일 위원, 이지호 위원
(이상 4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이상 5인)

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 온 뒤 맑게 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여수MBC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답게 여름의 기운이 가득한 오늘,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5월도 중반을 지나며 지역사회 역시 지방선거 분위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지역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 역시 여수MBC가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방송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대표이사

이현규 위원님과 박배연 위원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부터 회의 일정이 세 번째 주로 변경되어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콘텐츠센터장

콘텐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에도 정규 프로그램 방송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주와 지난 화·수요일에는 ‘트로트클라쓰’ 녹화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최유나, 소명, 요요미 등 가수들이 함께 출연했으며, 녹화분은 추후 TV 프로그램으로 편집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특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섬박람회 기획의 일환으로 금오도 추가 촬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3일간 현장 촬영을 진행했으며, 후속 편집 작업을 거쳐 섬박람회 개최 전에 방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해 섬박람회 기간 중 특집 편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작했던 섬 특집 시리즈 가운데 약 20편 내외를 선정해 연속 방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작한 ‘한국의 둘레길’ 8부작이 지난주부터 전국 편성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오 뉴스 이후 네트워크 특선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보도센터를 중심으로 선거기획단이 토론 프로그램 제작을 준비 중이며, 3~4회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방송 재난 대응과 관련한 현장 점검 및 교육·모의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자체 교육과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테이프 자료 디지털 전환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방문진 지원사업에 이어 한국언론재단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2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디지털 전환 및 일부 장비 임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6월에는 특별한 신규 기획보다는 정규 방송과 섬박람회 준비, 지방선거 및 개표방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주셨는데, 이에 따라 라디오전망대에서는 선거기획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해 여수시민협 관계자와 정치학 교수 등을 연속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브리핑, 이슈책, 정치한판, YMCA 토론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거의 매일 기획 시리즈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도 장마·태풍 등 하절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 반영 사항으로는 ‘1948 그녀들’의 한국PD대상 수상 이후, 정지아 작가가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을 후속 보도로 다룬 바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치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의견으로는 홈페이지에 ‘박성원의 음악식당 응원 덕분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의견이 접수돼 감사의 답변을 게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치 사항은 지난달 별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 콘텐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섬박람회가 장마나 태풍 등에 대비해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콘텐츠센터장

현재 한창 준비 과정에 있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을철 행사이긴 하지만 태풍 등 기상 변수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다음으로 박광수 보도센터장 설명 듣겠습니다.

○ 보도센터장

보도센터 주요 취재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주요 취재 내용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지난 회의 당시에는 D-36 정도였는데, 현재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D-13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선 후보들이 확정됐고, 후보자들의 면면과 주요 이슈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후유증, 구조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며, 민주당 중심 정치 지형 속에서 나타나는 무투표 당선 문제도 심층적으로 짚었습니다.

또 현재 지역은 이중적인 산업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과 광양 철강산단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중동 사태와 구조적인 산업 문제, 대응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도 총리 현장 방문 이후 변화된 상황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 논란으로 오히려 전국적 관심이 커진 상황인 만큼, 향후 실제 행사 운영과 성공 개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선거 이후 곧바로 통합 단체장이 확정되고,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실제 통합 체계가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과 실행 계획을 충분히 검증하며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 여부와 실행 로드맵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섬박람회는 6월 말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운영·교통·안전·숙박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산업 분야에서는 포스코 전기로 가동 문제가 큰 현안입니다. 제철소 운영 방

향 전환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6월경 상업 가동 상황 등을 집중 취재할 예정입니다.

여수산단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석유화학업계와 정유업계가 예상 밖 흑자를 기록한 상황도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구조조정 필요성은 여전히 큰 것인지 등을 함께 짚고 있으며, 향후 여수산단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업그레이드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광주 쏠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동부권 우려와 균형발전 문제 역시 충분히 반영해 보도하겠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서 섬박람회와 관련해 지나친 우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따라 침수 우려 대응과 보완 상황 등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또 선거 보도 강화 의견을 반영해 졸속 선거구 획정 문제, 획정 지연, 선거구 분리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 기득권 문제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유권자 알 권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교육감 후보자 소개와 동부권 관련 공약을 다룬 보도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서서 후보자 인터뷰를 보다 밀도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도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본선 인터뷰는 시간을 다소 늘리고 질문의 깊이도 강화하려 했으나, 짧은 뉴스 시간 안에서 충분히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인터뷰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밀도 있게 편집하려 노력했습니다.

현재 기자들과도 선거 보도와 관련해 단순 전달이 아닌 검증 중심 보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 충실하게 선거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보도센터에서 좋은 취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지역 로컬방송인 여수MBC 뉴스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중앙 뉴스를 보다가도 ‘로컬뉴스 언제 시작하지’ 하며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화면에 ‘로컬 820’ 이 표시되는 것을 보고 ‘맞다, 우리 지역 뉴스가 8시 20분에 시작하지’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간대를 정확히 알고 보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다음은 정용우 사업센터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 사업센터장

사업센터 주요 업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낭만버스킹 사업을 4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

공원 일원에서 매주 금·토요일 거리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여수거북선축제와도 연계해 진행했습니다.

또 2026년 정채봉문학상 공모를 5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접수를 받아 올해 문학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방송연설 및 방송광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 등을 중심으로 다음 주 집중 편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방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월에는 연극 ‘노인의 꿈’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티켓 예매를 진행 중이며 약 50% 정도 예매가 이뤄졌습니다.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공연인 만큼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춘마이크 행사, K-POP 광양공연 등 각종 공모사업과 공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수주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여수MBC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의 제안 말씀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성주 위원

먼저 여수MBC가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전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꼭 필요했고 또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들이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는 장마가 평년보다 빨리 오고 폭염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후재난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미리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보도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뉴스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뉴스 종료 직전에 약 1분 정도 동일한 헤드라인 화면이 계속 송출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기사나 다른 헤드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노출됐다면 시청자들이 덜 지루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진행 과정에서 앵커 멘트가 잠시 멈추는 등 작은 방송사고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롬프트 문제로 보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뉴스 완성도를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표이사

제가 어제 3사 사장단 회의가 있어서 해당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로컬뉴스 종료 이후 스포츠 뉴스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면인 것 같습니다.

서울 방송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성주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서울 방송과 지역 방송 간 시간 차이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화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지루하거나 ‘방송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 다양한 기사나 스트레이트 형식의 화면을 순환해서 보여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보도센터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화면을 두세 가지 정도 준비해 순환해서 보여주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덜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서울 뉴스 종료 직전에 긴급 단신이 추가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연결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관련 단신 같은 긴급 뉴스가 갑자기 추가되면 본사와 송출 타이밍을 조정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개선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표이사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해당 화면도 약 2년 정도 사용된 상태입니다. 최근 지역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시안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좀 더 개선된 형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병현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 박병현 위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수MBC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최근 삼성 노조 관련 협상 과정이 타결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를 보다 보니 언론이 팩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언론사 성향에 따라 보도 방향이나 강조점이 달라지

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법 기술자’ 처럼 ‘언론 기술자’ 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삼성 성과급 관련 보도에서도 ‘1인당 6억’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부각되는데, 실제 세금과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체감 금액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에도 숫자 자체만 강조되다 보니 마치 특정 집단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팩트 자체는 맞더라도 어떤 맥락과 함께 전달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언론이 조금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운동 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아침부터 주요 사거리마다 유세 차량과 음악 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후보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반복되는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과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거 문화도 보다 성숙하고 정돈된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처럼 시끄러운 음악과 확성기 중심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시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모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조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애숙 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수MBC에서도 선거 보도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라디오와 TV를 통해 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회의 때 제안드렸던 내용들이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좋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속하게 피드백이 이뤄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디오전망대에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 속 시원한 의견과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SNS를 보면 일부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네거티브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여수MBC가 후보들의 정책과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검증해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뉴스에서 후보자 인터뷰를 잘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을 들으니 뉴스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 콘텐츠센터장

그래서 뉴스에서는 시간 제약이 있지만, 유튜브에는 후보자 인터뷰 풀버전을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 조애숙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까지 직접 찾아보지만, 일반적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보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수지역에서는 현재 복지TV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후보 검증 토론토도 진행되고 있고, 저도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후보들에게 질문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런 후보 검증과 토론이 공영방송인 여수MBC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시민들이 후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면 후보자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이 훨씬 분명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지난달 안인수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보니 당시 준비하셨던 배경 사진도 아주 잘 나왔더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안인수 위원

지방선거가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수MBC가 선거 보도를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을 보다 보면 공약 자체의 비교나 검증보다는 이슈별 논쟁이나 정치적 공방, 개별 발언 중심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진행될 본선 토론회나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후보자별 공약을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는 차트나 그래픽 등을 추가하면 유권자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의 경우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들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수천억원 규모의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같은 공약은 자원 조달 문제나 실제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비교·검증이 이뤄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선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뉴스데스크에서 여수공항 간이역 설치 필요성을 다룬 보도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 숙원사업으로 이야기돼 왔지만 관심 부족으로 사업화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순천·광양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통 인프라가 핵심인 만큼, 이런 사안은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말

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섬박람회와 관련해서도 최근 유튜브 논란 이후 준비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후 여수시와 조직위, 산단 기업들까지 나서서 지원과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과 변화된 모습들도 함께 전달해 시민들과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균형 있게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여수 산단 관련 보도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석유화학 기업들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내용만 보면 자칫 “산단이 어렵다더니 실제로는 돈을 벌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여수MBC 보도에서는 재고 평가 이익 등 구조적인 원인을 함께 설명하면서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정부 지원 문제와 연결해서도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정확한 팩트와 맥락을 함께 전달해 주신 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강점을 잘 보여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소정 위원님.

○ 박소정 위원

평소 MBC 뉴스는 빠짐없이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20일자 기준으로 ‘편파 보도’라는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다시 뉴스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는데, 실제 보도에서는 편파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기자들이 직접 현장 취재를 많이 하면서 뉴스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거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역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보도들도 균형 있게 잘 다루고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17일 보도된 여수공항 접근성 개선 및 간이역 신설 관련 보도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또 지역 행사들을 미리 안내해주는 보도들도 지역민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 취재하면서 현장감도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여순사건 및 보도연맹 국가배상 관련 보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진행되는 사안처럼 보도됐는데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고, 부모·자녀 보상금 부분도 실제 금액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18일 무투표 당선 관련 보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짚고,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보완 등 대안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일 보도된 인구 유출 문제도 의미 있게 봤는데, 특히 20~30대 청년층 유출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빠져나간다는 현상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인지, 교육·문화·정주 환경 때문인지 등을 함께 분석하면 지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 보도 역시 행사 소개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실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 유형이나 박람회의 실효성 같은 부분까지 현장 취재가 조금 더 깊게 이뤄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앤이슈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보라 광양시의원과 이세은 순천시의회원이 출연해 문형철 기자와 진행한 토크가 굉장히 현실감 있고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순 전문가 중심 토론보다 실제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느낀 이야기를 풀어내니 훨씬 공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토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도 시간이 짧은 아쉬움은 있지만 라디오 전망대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주고 있어 지역 공론장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 <어바웃 우리동네>는 예전보다 콘텐츠 힘이 조금 약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오래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지역 콘텐츠 발굴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새로운 기획이나 활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황지 기자도 예전에는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훨씬 차분하게 진행돼 듣기 편해졌습니다. 이런 변화와 노력들이 보여 좋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 번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번호 없이 가나다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방식이나 유의사항 등을 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운동 문화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처럼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고 차량 유세를 하는 방식 외에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 사례나, 유권자들이 바라는 선거운동 문화는 무엇인지 등을 다뤄주면 의미 있는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여수MBC가 날로 좋은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댓글 내용과 실제 방송 내용을 직접 다 검증해 보셨습니까?

○ 박소정 위원

네. 사실 시청자위원으로서 혹시라도 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여수MBC가 실제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시청자위원

으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5월 보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편파 보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발생한 논란이나 문제들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편들거나 공격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후보는 이슈가 안 되다 보니 노출 기회가 적은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인데, 그것을 모두 편파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습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라는 말이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투표 당선 문제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의 경우 시민들이 후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익숙하거나 눈에 띄는 이름에 투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제기되는 비리 의혹이나 카지노 관련 문제 등은 보다 정확하고 충분하게 보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문제 역시 단발성으로 다루기보다 정기적인 고정 코너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기후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 지역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소개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서는 차량 유세와 스피커 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차량 방송 대신 직접 걸어 다니며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선거운동 사례들을 소개하고 조명해 준다면 선거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 박배연 위원님.

○ 박배연 위원

이번 5월에는 지방선거 관련 보도가 많은 상황에서도 여수산단 용수 문제나 상수도 사고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뉴스들도 균형 있게, 또 시의적절하게 잘 보도된 것 같아 좋게 봤습니다.

또 앞으로 후보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검증 과정에서 자극적인 이슈 중심으로 흐르기보다는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된 변호사 출신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변호 논란 관련 기사도 관심 있게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사건 이후 행동 등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과연 이 사안이 실제 논란이 될 정도의 내용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보도 과정에서는 여수MBC가 한쪽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어떤 사안을 검증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또 그것이 실제 공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자극적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철저한 팩트 체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현진 위원님.

○ 천현진 위원

기존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실제 보도와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애쓰고 계신 부분에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실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정리된 공약과 약속들이 선거 이후에도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공약 이행 점검 목록’ 처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검증될 수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 공영방송 역할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무투표 당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도를 관심 있게 봤는데,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

된다는 문제 제기뿐 아니라 실제 무투표 당선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공약과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여수MBC가 후보들의 정책과 계획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실제 선거를 앞두고는 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투표소는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 실질적인 안내 정보들도 친절하게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공약 검증이나 정책 비교가 스트레이트 뉴스 안에서 모두 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풀버전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말미나 종료 이후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MBC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식의 자막이나 안내를 추가하면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섬박람회 보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 준비 상황 점검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조직위 공식 브리핑 중심이 아니라 실제 지역 주민, 상인, 섬 주민들의 체감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면 전달력이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준비 부족 논란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현재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검증하고 보여준다면, 오히려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수MBC 유튜브도 단순 다시보기 참고 역할보다는 지역 현안을 축적·아카이빙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지방선거나 행정통합 관련 콘텐츠가 메인 화면에 정리돼 있지만, 섬박람회·산단 위기·공약 검증 등 주요 현안들을 별도 목록 형태로 정리하면 시청자들이 관심 이슈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츠 콘텐츠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선거나 사건·사고처럼 다소 무거운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역 청년 이야기나 문화, 일상적인 지역 콘텐츠 등 조금 더 가볍고 친근한 내용들도 함께 제작되면 젊은 세대나 비실시간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퍼스트 820’ 타이틀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IPTV 편성표에는 여수MBC 뉴스 시간이 8시 45분으로 표시돼 실제 예약 시청을 하면 이미 스포츠뉴스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준비를 많이 하신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규 위원님.

○ 이현규 위원

먼저 회의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회사 일정과 계속 겹치다 보니 참석을 제대로 못했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다 보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덧붙일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여수MBC 유튜브 채널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존 보도들이 최신순이나 인기순 정도로만 나열되는 형태이다 보니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뉴스가 쌓이는 구조보다는 주제별로 그룹화해서 정리되면 훨씬 보기 좋고 활용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도들이 축적되면서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일정 부분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선거나 박람회처럼 이벤트성 이슈 보도는 비교적 많은 반면, 장기적인 지역 현안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속 보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MBC 차원의 연간 캠페인이나 장기 프로젝트 같은 형식으로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해 꾸준히 보도해 나가는 방식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그렇고, 특정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누적 보도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제 사무실에서 보면 바로 앞에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보이는데,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수·순천·광양이 사실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 광주 쓸림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순광 통합 문제나 동부권 공동 발전 같은 보다 큰 담론을 지역 언론이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슈화하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측에서 답변이나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도센터장

너무나도 소중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하나같이 저희 보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세심하게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특히 박병현 위원님께서 웃음기를 거두고 말씀을 시작하시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후보 간 공약과 정책 중심의 비교·검증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네거티브나 공방 중심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비교해 달라는 의견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사실 이전부터 계속 고민해 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담당 기자들이 지금까지 진행한 후보 인터뷰들을 다시 전부 검토하면서 각 후보들의 차별화된 정책을 ‘버티컬’ 하게 비교해 보여주는 방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섬박람회나 산단 구조조정 같은 주요 현안을 두고 후보별 입장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초점 6·3 쟁점’, ‘초점 6·3 정책’ 같은 타이틀까지 구상하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자들이 주말까지 나와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이번 선거가 정말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통해 후보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 문제 인식 차이 등을 시청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정책 내용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 간 차이점을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작업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꼭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유권자들이 물건을 비교하듯 한눈에 후보별 차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보자는 내부 논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자칫 여수MBC가 편파 보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을 놓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추진했고 성과가 있었는지, 또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 정치 경험이나 행정 경험 없이 새롭게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정책을 일종의 구호처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정책 자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성 같은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사람과 지역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가 결국 시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재선 후보들은 기존 정책 실현 여부를 검증하면 되지만, 새롭게 등장한 후보들은 정책 자체보다도 리더십과 자질,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와 진정성 등을 살펴보는 접근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려다 보면 오히려 편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도센터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과 방송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역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들은 사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앞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